

신년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해 보궐선거를 통해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시고, 민선10대 군정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운영의 동반자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강화군수로 취임하며 '소통과 통합'이라는 군정 철학 아래, 모두가 하나된 강화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음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화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들이 결정됩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강화~계양 고속도로 착공은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들입니다.

특히 강화남단 300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2035년까지 약 3조 7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첨단농업지구, 역사문화관광지구, 글로벌 테마파크가 조성되며, 강화와 영종을 잇는 연륙교로 인천공항을 통해 세계와 연결될 것입니다.

현재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산업통상자원부 자문회의를 마쳤으며, 강화남단 '강화국제도시'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강화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강화군을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강화군 성장과 도약의 2025년 군정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군민통합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군수실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께 민원 처리현황을 메시지로 회신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윈스톱 방문 민원 창구를 열어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세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다자녀 양육지원 확대 등으로 촘촘하고 세분화된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어르신 무상대중교통 서비스를 버스에서 택시까지 확대하고, 이어, 여객선까지 운임 무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축·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첨단농업 육성과 청년농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역할 확대 및 권역별 농기계 은행 운영 등 농촌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농어촌 민박까지 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화섬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과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축산업 발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생활체육과 문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먼저,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며 건강도 챙기는 여가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 남부문화센터 건립, 선원면 근린공원 조성 및 선행천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여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군의 장점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통해 작은 마을까지 문화가 스며들고 우리 군민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강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 및 청소년 복합문화타운을 구축하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의 밝은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교육발전특구 지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맞춤형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학습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체험학습 전용 에듀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기회를 확대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가족제류형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해 수도권의 다양한 학생과 가족이 우리군으로 찾아 올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창업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일자리센터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강화군은 현재 지역소멸과 경기침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서 7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와 함께 손잡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2025년의 끝에는 강화의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화군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강화군민과 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강화군수 박용철

강화군의회 부의장입니다!



한 승 희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강화군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우리 한 마음 한뜻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해를 맞아 우리 강화군의회는 군민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협치를 바탕으로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으로 여기며, 군민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강화군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개정하고,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며,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피,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강화군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화~계양 고속도로 착공 등 군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더 꼼꼼히 챙기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지지하겠습니다.

공공 안전, 지역상권 보호, 환경 보호는 물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더욱 강화하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모두가 차별없이 평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새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2025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강화군의회의원 모두는 단결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며 극복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강화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강화군의회의 진심이 군민 여러분께 닿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甲辰年) 새해, 7만 군민 여러분 모두 많이 웃으시고, 강화군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화군, 제40대 김학범 부군수 취임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제40대 강화군 부군수로 김학범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이 취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동면 출신의 김학범 부군수는 1990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공직을 시작해 2013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체육진흥과, 정책기획관을 거쳐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체육진흥과장, 총무과장을 역임했으며, 2024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후 보건복지국장으로 재임하다 2024년 12월 31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으로 제40대 강화군 부군수로 취임하게 됐다.

김학범 부군수는 인천광역시에서 여러 부서를 거치며 역량을 쌓아왔고 특히 보건복지국장으로 재임시 공공심야야구 확대 운영, 인천의료원 별관동 준공 등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 왔다.

김학범 부군수는 “강화군 부군수로 취임해 기쁘고 공직생활 동안 쌓아온 근무경험을 토대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의 모든 공직자가 김학범 부군수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40대 김학범 부군수

202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화투데이 임직원 일동

2025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장기천
(사)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장

2025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을사년 청사의 해로, 지혜와 기회가 가득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을사년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성장과 번영을 설계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운동 초창기에 지회 조직을 결성하고 출범한 강화노인회는 그동안 모든 회장님들의 노력과 강화군의 지원으로 지금은 전국 최고의 노인회, 노인대학, 노인복지관의 면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고

제3별관 건축이 2023년 계획이 수립되고 2025년 착공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완공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노인회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주신 강화군민들과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 기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눔·봉사·배려’를 실천하며 노력하는 해가 되기를



조인술
강화군새마을회장

존경하는 강화군민, 강화군새마을회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새마을회 회장 조인술입니다.

희망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에는 뜻하신 바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강화군새마을지도자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봉사에 대한 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솔선수범하고 계신 지도자님들의 여름김치 담그기,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등으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반찬 걱정을 덜어드렸고,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통한 집고쳐주기,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및 불우이웃돕기 활성화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새마을회의 단결된 협동심을 더욱

배양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저희 새마을회가 새로운 시대적정신인 ‘나눔·봉사·배려’를 실천하며 노력하는 해가 되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따스한 격려와 보살핌으로 저희 강화군 새마을회에 깊은 애정 보여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회원님들과 강화군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한훈
강화농업협동조합장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예로부터 지혜와 재생,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새해가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 강화농협이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강화농협은 수많은 외부적 위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29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경기 불안정에 대비하여 195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 강화농협의 상호금융사업은 약 8,831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업 부문에서도 누적 매출 502억원을 달성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농협은 상호금융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여 경제사업의 기반을 넓힘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조합원 복지 증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는 우리 강화농협에 있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지혜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재생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처럼, 우리 강화 농협은 농업의 근본은 지키면서도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전환, 청년 농업인 육성, 친환경 농업 확대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구하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강화농협을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업 이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저희 임직원 모두는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강화군민 여러분!



송 정 수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
조합장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강화군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을사년(乙巳年) 청사(靑
蛇)의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 조합장 송정수 인사 드
립니다.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은 강화군민과 축산인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2024년 예수금 500억원을
추가 추진하여 잔액 5,893억원과 대출금 200억원을
추진하여 잔액 4,88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조합이 강화군 대표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축산인과 강화군민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강화군의 축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및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 등 어려운 축산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화 축산인에게 지속적인
지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조합의 역량을 다 하여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 이웃들과 함께 덕담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두터운 정을 나누는 뜻깊은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꿈을 이루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 만 식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려
분, 그리고 경인북부수협을
이용해주시는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이만식입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새로운 시작과 함
께 더 큰 꿈을 이루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기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인북부수협을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조합원님과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수협은 올해에도 강화군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조합원 여러분
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등 우리 강화의 어업인이 직면한 여러가지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합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해가 될 것
입니다.

우리 경인북부수협은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화군민과 조합원여러분들이 소망하
는 바를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
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을사년(乙巳年) 푸른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황 의 환
서강화농협 조합장

2025 을사년 (乙巳年)
푸른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푸른
뱀처럼 유연하고 침착하
게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
롭게 풀어갈 수 있는 행복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뱀은 예리한 직관과 지혜를 가진 동물로 상
징되며 2025년은 개인과 사회가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할 수 있는 해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한해 서강화농협은 강화군민의 실익 및
편의를 증진 시키고 희망농업·행복농촌을 실현
하고자 하점면 신봉리에 대지면적 약 2,700평 연
면적 약 730평 규모의 서강화농협 종합청사를
신축하여 강화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였
습니다.

이로 인해 관내 조합원 분들과 인근의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질 높은 금융서비스와 경제사업

및 하나로마트 업무를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이룬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서강화농협에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
드리며, 2025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화군, 『을사년(乙巳年) 시무식』 개최...

2025년 본격 업무 시작 / ‘소통과 화합’으로 강화군의 성장과 도약 위해 달릴 것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갖고 을사년(乙巳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박용철 군수는 지난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2025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신년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담아 ‘군민

의 편안한 일상’과 ‘미래성장기반 마련’에 목표를 두고 2025년 군정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군민통합위원회 및 열린군수실 운영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교육발전특구시범지정 성공 운영 ▲청소년 교육문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강화군의 미래를 좌우할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용철 군수는 “지난해 우리군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준 덕분에 신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올해도 현장에서 군민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강화군의 발전과 더 큰 도약을 위해 힘 없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시무식



2025년 시무식

강화군, 지역 맞춤형 ‘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신청...첨단농업 등 22개 사업 57억 투입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2월 5일부터 19일까지 22개사업에 대한 농업기술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기술보급사업은 기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강화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 기술 보급, 농업인의 작업 편의성, 생산비 절감 기술지원 등을 목표로 식량작물·소득작목·첨단농업 분야에 57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히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현장 실태조사 후 강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범 요인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여하거나, 사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사업은 성격에 따라 별도 신청받을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사전문의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각 읍·면 및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농업기술보급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며, 또한 농업인 소득증대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2025년 기술보급사업



2025년 기술보급사업

강화 교동도, '25~26한국관광 100선' 선정 쾌거!

'오징어게임' 등 인기 방송 촬영지! 꼭 가봐야 할 교동도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교동도가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21~24년, 2회 연속)에 이어 '25~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대표성, 매력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격년마다 우수 관광지 100 곳을 선정·홍보하는 사업이다.

교동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북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옛 추억과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주말이면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교동도의 주요 관광지로는 계절별로 아름다운 수목과 꽃이 피어나는 화개정원과 아찔한 스카이워크 체험을 하며 드넓은 북한의 연백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화개산 전망대, 1960년~70년대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북고풍 명소, 대룡시장 등 독특한 관광 포인트를 갖고 있다.

한편, 섬 전체가 민간인통제선 너머에 있어 차량으로 교동도에 들어가려면 검문소를 지나야 하는데, 전자출입증 시스템이 구축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검문소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간략한 정보를 입력하면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우리군의 명실상부한 관광명소 교동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이름을 올리게 돼 기쁘다"며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동도(화개정원)



교동도(화개산 전망대)

강화군, '2025년 산림사업' 추진 48억원 투입

산림사업 통해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 산불예방사업, 숲가꾸기, 조림사업, 사방사업 등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 산림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대는 물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사업 ▲숲가꾸기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 ▲조림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방

사업 ▲임도 신설사업 등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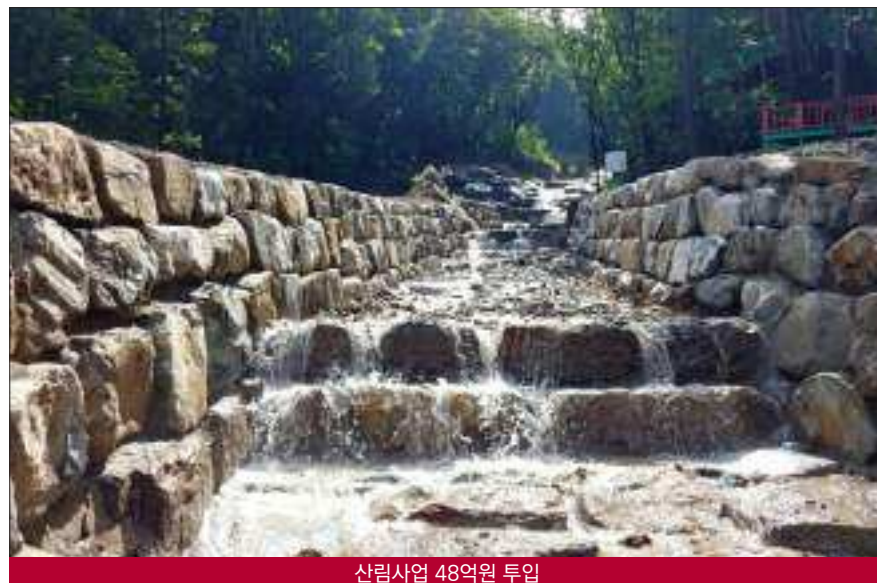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의 산림복원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각종 재해 예방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과 산사태 등 자연재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산림사업을 통해 이에 선제적 대응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산림사업 48억원 투입



산림사업 48억원 투입

강화군,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CCTV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 보호 최선



강화군,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주요 분야별 8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설 연휴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 접수 신속 처리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인 25일부터 30일까지는 상황반을 운영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상황 등을 파악하며, 원활한 수송대책과 교통질서 유지로 귀성객과 성묘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기간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해 대비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 병·의원 및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현황을 알 수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에 힘을 쓸 것”이라며,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어르신 교통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체감 맞춤형 정책으로 호응도 높아 / 2025년 하반기 택시까지 지원 확대 계획

- 지원대상: 70세 이상 강화군 거주 어르신
- 지원내용: 버스·택시 이용 요금 지원(※2025년 10월 시행 예정)
- 지원금액: **연간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 지원방식: 분기별 정산 지급(개인별 계좌 입금)
- 이용방법: '어서타시겨 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
- 문의: 해당 읍·면 사무소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체감 맞춤형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승·하차한 버스요금을 분기별 최대 4만5천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시행 1년 만에 ‘어서타시겨 교통카드’는 9,624명의 어르신들이 교통카드 발급을 받았고, 2024년 사업 시행 후 약 5억원의 교통비를 지원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확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버스만 지원했던 것을 몸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까지 확대하고, 연간 지원금도 최대 18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강화군이 어르신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로, 어르신의 발걸음에 자유를 더해 강화군 교통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교통비 지원 덕분에 외출 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다.”며, “어르신들의 이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보다 군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통비 지원받을 수 있는 ‘어서타시겨 교통카드’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편의점 등에서 자비로 충전하여 버스를 이용하면 실제 이용한 버스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 1년에 4회 개인통장으로 환급해 준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2월 3일 ~ 2월 12일까지 현장 접수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새롭게 연구·개발된 신기술 보급과 변화된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증대 도모 및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관내 농업인이 많이 영농하는 작물인 고추, 토마토, 오이, 포도고구마, 수박 등 5개 작목별 핵심기술과 우수농산물에 대

한 체계적 관리 및 안정성 인증을 위한 GAP 교육을 강의한다.

교육일정은 ▲2월 3일(월) 고추 ▲4일(화) 토마토 ▲5일(수) 오이 ▲6일(목) ▲고구마(남부) ▲7일(금) 고구마(북부) ▲10일(월) 포도 ▲11일(화) GAP ▲12일(수) 수박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교육 당일 현장에서 접수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032-930-4130

기간	시간	장소	내용
25.2.3(월) ~ 2.12(수)	9:00~13:00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고추, 토마토, 오이, 고구마(남부/북부), GAP, 수박교육

일정표

교육종류	2월 3일(월)	2월 4일(화)	2월 5일(수)	2월 6일(목)	2월 7일(금)	2월 10일(월)	2월 11일(화)	2월 12일(수)	
교육시간	9:00~13:00	고추	토마토	오이	고구마(남부)	고구마(북부)	포도	GAP	수박

고구마 북부지역: 경원면, 선원면, 물은면, 내가면, 하정면, 명사면, 송학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고구마 남부지역: 갈성면, 화도면, 향도면

강화군의회, 을사년 첫 임시회 개최 이번 회기부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



강화군의회, 을사년 첫 임시회 개최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가 지난 21일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화군 보건소로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함으로써 1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부터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하고 투명한 의정 구현을 위해 강화군의회 인터넷 방송이 정식으로 운영된다.

시청을 원하는 군민은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강화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ganghwa.go.kr>)에 접속한 후, 상단의 인터넷 방송 메뉴를 선택하면 실시간 시청 및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을사년 새해에는 우리 군 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중심 주제로 다룰 것이다”며,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경제 활력을 되살릴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전했다.

강화군,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위생업소 점검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 등 판매 업체 집중 점검



강화군청 전경사진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대비해 군민이 많이 소비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및 떡, 두부 등 제수용 식품(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냉장·냉동 보관기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유통·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설 명절 철저한 사전안전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건설기획단 운영, 6억원 예산절감 기대

지역 자재 우선구매, 일자리 창출 역점



건설기획단 운영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내달 7일까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설(토목)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2025년 강화군 건설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의 주민편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와 측량을 자체 시행해 신속한 설계로 조기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기획단은 건설사업 166건, 공사비 약 70억원에 대한 자체 측량·설계로 약 6억원의 설계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올해 고물가와 환율급등으로 인한 주요 건설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자재 우선 구매와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표준시장단가 및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건설공사 조기발주로 주민 불편을 속히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광역의원 보궐선거 오현식 출마선언문

강화가 키운 오현식,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속에서 강화군을 위해 노력해 온 오현식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강화군민께 더 큰 보답을 드리
고자 깊은 숙고 끝에 군의원직을 내려놓고, 강화군
광역의원 보궐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지방소멸시대에서 '온 세대'가 함께 살고 싶은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두 아이에
아빠이자, 재선 군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왔습
니다. 이제 그 목표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한번 더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화는 발전 자원이 풍부한 곳이며 더 큰 강화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역량으로
이끌어나가는가 하는 과제가 있을 뿐입니다.

강한 끈기와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더 큰 강화,
묵묵히 키워나가겠습니다.

강화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강화군에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제 형제이자 이웃입니다.

묵묵히 걸어온길, 강화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배운 값진
경험은 제 삶의 큰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의원 선거는 임기가 1년 남짓합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되고 훈련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를 항상 믿어주셨고, 또 제가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을 위해, 오현식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큰 성과로 꼭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종, 인천시의원(강화) 보궐선거 공식 출마 선언

“섬김의 자세로 강화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유원종 인천시의원(강화군 선거구)
예비후보가 17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실에서 “군민
행복을 위해 시비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신 제 아버지의 모습을 되새기며, 저 또한

진정한 섬김의 자세로 강화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강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가가
되고자 한다”며 강화발전·군민행복을 위한 공약
으로 교통망 확장 및 교통편의 개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군민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 강화,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19·20·21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460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 편성과 국정
감사를 통한 정부 견제 역할 등 큰 경험을 해왔
다”며 “그동안 쌓아온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와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한 실질
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발휘하겠다. 더 나아가 인천시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감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확실히 내어 시의원으로서의 본분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강화군민 행복과 보수 가치를 지켜내겠
다는 사명으로, 우리 강화와 우리 당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오직 한 길만 걸어 왔다”며
“이제 섬김의 자세로 박용철 군수님과 함께 군민의
뜻을 받들어 중단없는 강화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역사
기고

옥씨부인전, 외지부와 전기수

이경수



전기수 송서인(출처 JTBC)

외지부 알아보기

“내가 이기게 해줄게.”

외지부는 억울한 사람을 설득해서 송사(訟事, 소송)하게 하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법률, 소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고 소송 과정에 필요한 요령을 알려줍니다. 물론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거죠.

그런데 문서를 위조하는 등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기도 해서 그들에 대한 당대 인식이 좋지는 않았습니. 특히 지배층에서 외지부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외지부! 무슨 관청 이름 같은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만, 그냥 법 공부를 많이 하는 민간인이요, 이들을 뽑는 공식적인 시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외지부’라는 말은 장예원(掌隸院)의 전신인 도관지부(都官知部)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도관은 고려시대에 노비 장부 관리와 관련 소송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형부(刑部, 조선의 형조)에 소속된 기관이었습니다.

지부는 지부사(知部事)를 말하는데, 형부 소속으로 도관에 파견되어 노비 관련 소송을 처리하던 사람입니다. 외지부는 도관 밖[外]에서 임의로 지부사[知部] 행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속칭입니다. 농담 삼아 만들어진 말이 널리 퍼지면서 공식적인 호칭이 된 것 같습니다.

1472년(성종 3), 신숙주와 한명회가 함께 임금에게 아뢰입니다.

“외지부라고 불리는 자들이 항상 관문(官門)에 서서 피고와 원고를 몰래 사주하거나, 송사를 대신하면서 시비(是非, 옳고 그름)를 어지럽게 합니다. 하여 관리가 제대로 판결하기 어렵게 하니, 해당 관청이 조사해서 통렬히 처벌하게 하소서.”

성종 임금이 그리하라, 지시합니다. 이후 외지부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발각되면 외지부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벌을 받게 됩니다. 외지부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지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 음성적으로 계속 활동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을 대신해서 관아에 나가 대리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요.

수요가 많은가? 그렇습니. 양반들만 소송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도, 평민들도, 천민 노비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소송을 냈습니. 특히

구더기, 구덕이

“꿈이 무엇이나?”

“늪에 죽는 것입니다.”

꿈이 늪에 죽는 거라고? 뭘 대답이 이럴까요.

“굶어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고, 살다가 늪에 죽는 것입니다.”

대답한 이는 노비입니다. 그것도 아주 포악한 양반집의 사노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구덕이! 구더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네요. 구덕이라는 이름 속에 노비의 신산한 삶이 스며들었습니다.

구덕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JTBC 사극 ‘옥씨부인전’을 보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무지막지한 악역인 연진이를 연기했던 배우 임지연이 주인공 구덕이 역을 맡았습니다.

풍광 아름답다고 소문난 장소마다 다 찾아가서 촬영한 것인지, 멋진 풍경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TV 큰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 집 작은 TV는 너무 멀쩡하게 잘 나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사건도 나오지 않아서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 조선 후기가 극의 무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반정’이 언급되고, 사람들이 청나라 오가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인조반정 지나 병자호란도 끝난 이후 시대로 보면 될 것입니.

결국, 겁탈하려는 주인 몸에 낫을 쫓고 도망친

처녀 구덕이. 운명은 그녀를 양반의 길로 밀어 넣습니. 결혼도 하게 합니. 그렇게 양반 옥씨부인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되자마자 홀몸이 됩니. 남편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 옥씨부인은 변호사 격인 외지부가 되어 불의에 맞서 싸우며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근원적 불안감은 어쩔 수 없네요. 도망 노비, 그것도 주인 살인죄! 구덕이의 주인은 살아났습니. 하지만 그 시대에는 살인 미수죄도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노비 신분이 들통나면, 최소한 목이 달아나는 참형을 당하게 될 구덕이 처지입니.

그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정인이 있습니다. 추영우라는 배우가 연기한 송서인입니. 극 속에서 유명한 전기수로 나왔죠. 그런데 옥씨부인은 다가오는 송서인을 밀어내기만 합니. 마치 ‘나는 행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맨날 다짐하며 사는 여인 같습니다.

송서인이라는 남자! 순정도 이런 순정이 없습니. 순애보도 이런 순애보가 없습니. 송서인은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신을 희생하며, 구덕이를 돕습니. 지켜줍니다. 묵직한 사랑의 힘을 그려줍니다.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으실 때면, 옥씨부인전이 끝났을 겁니다. 제가 원고 마감 시간에 맞춰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아직 2회가 남은 상태입니. 그러니까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 흐름으로 보아 비극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떨든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외지부 옥씨부인(출처 JTBC)



옥씨부인전 포스터 부분



영화로 제작된 여로 포스터

백성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조선 후기에 각종 소송이 많았습니다.

지방 수령의 업무 가운데 힘들고 또 중요한 것이 소송 판결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수령이 재판하는 걸 보며 유능한 사또인지 아닌지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강화학과 이시원의 아들이고 이견창의 아버지인 이상학은 재판 잘하는 사또로 유명했습니다. 이상학 사또에게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퍼질 정도였습니다. “원님(이상학)의 판결을 들으니 두어 마디에 지나지 않건만, 내 잘못이 흰하니 어찌 후련치 않겠소?” 소송에 진 사람조차 불만은커녕 후련하게 여기도록 한 이가 이상학입니다.

그런데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가 문서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외지부입니다. 외지부가 소장을 대신 써주고 일 처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외지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외지부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547년(명종 2)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헌부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요즘 기강이 해이하고 인심이 각박해져서 탐욕을 자행하되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으며 세력을 믿고 공공연하게 남의 전민(田民)을 빼앗는” 세력가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친인 이상이라는 사람이 “외지부와 결탁하여 문기(文記)를 위조해서 남의 노비를” 빼앗아 소송을 당했는데, 오히려 상대를 난폭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혈벗은 농민과 노비를 위해 헌신하는, 옥씨부인 같은, 외지부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권력가에 빌붙어 온갖 불법을 자행하던 외지부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변호사가 있고,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큰 죄인을 편들어 돈벌이만 신경 쓰는 변호사도 있습니

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제 외지부 옥씨부인으로 돌아갑니다. 옥씨부인이 관복 같은 옷을 멋지게 꾸며 입고 당당하게 관아 재판장에 서서 변호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조선 후기입니다. 외지부는 불법입니다.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일합니다. 붙잡히면 처벌받는데, 어찌 재판장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판타지일 망정, 통과하고 몽클한 장면입니다.

지금과 유사한 변호사 활동은 대한제국기부터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900년에 법무대신(법무부장관격) 권재형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이 《승정원일기》에 실렸습니다.

상소에서 권재형은, 외국에서는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변호하는 직임을 두어 백성들의 소송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읽힙니다. 1905년, 고종은 법률 제5호로 변호사법(辯護士法)을 반포합니다. 1907년에는 법무에서 변호사 시험을 시행해서 이항중 등 6인을 선발했습니다.

전기수는 뭐 하는 사람?

옥씨부인 직업이 외지부이고, 정인 송서인은 전기수라고 했지요. 전기수(傳奇叟)는 군중에게 소설 읽어주는 이야기꾼입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표정과 몸짓과 목소리를 달리해가며 읽습니다.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손녀가 되기도 합니다. 목소리에 인간 희로애락을 다 담아냅니다. 일종의 모노드라마를 펼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수 공연에 음악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반주자와 함께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주로 길거리나 공터에서 하는 공연이니 입장료가 있을 리 없지요. 전기수는 돈을 어떻게 벌까요? 이렇게 법니다. 이를테면 이몽룡이 어사 출두할 때라던가,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는 순간이

라던가, 아무튼 듣던 사람들이 한창 몰입해 있을 때, 딱! 이야기를 끊습니다.

전기수의 판청! 의도된 침묵입니다. 청중들은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저기서 전기수에게 돈을 던집니다. ‘관람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전기수가 모자를 돌려 돈을 걸기도 했대요. 한편, 부잣집에서 손님을 초대하거나 축하잔치 같은 걸 벌일 때 전기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큰돈을 받고 부른 집에 가서 공연합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다. 종로거리 연초 가게에서 짤막한 소설을 듣다가 영웅이 뜻을 이루지 못한 대목에 이르러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풀 베타 낫을 들고 앞에 달려들어 책 읽는 사람을 쳐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다고 한다.”

《정조실록》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지나치게 몰입한 누군가가 소설 속 이야기를 현재 상황과 구분하지 못하고 그만, 전기수를 살해한 것이에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만, 전기수의 표현 능력이 대단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72년에 엄청난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70% 정도였다죠. 분이(태현실)와 영구(장육제)가 나오는 ‘여로! 악역으로 시어머니(박주아), 시누이(권미혜), 달중이(김무영)가 나왔습니다. 악독한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악역 배우들은 길거리에 함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보는 이마다 욕하고 손가락질해서요. 녹화하던 어느 날, 군인들 떼이 방송국에 들이닥쳐 외쳤대요. “시어머니, 달중이, 시누이 나와!” 그래서 피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방송과 실재를 혼동하는 모지라는 사람들? 글썄요. 그만큼 마음이 순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 써놓고 보니, ‘여로’가 그림습니다. “그 옛날 오색댕기 바람에 나부길 때~” 이미자가 부르는 주제가나 다시 들어 봐야겠습니다.

기고

“이게 나라냐”... 불붙는 분노와 저항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들으라. 후안무치(厚顔無恥)와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없구나. 혹시 짐승이 사람으로 잘못 태어난 것이더냐. 그렇지 않다면 하루빨리 5000만 국민 앞에 무릎꿇고 엎드려 사죄하라.

오늘날 당신들의 악행을 보면서 견디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들은 온전한 정신일 수가 없구나.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잘못을 아직도 모른다는거냐. 왜 건전하고 상식적인 국민들을 이토록 고통과 좌절 속에 빠뜨리는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며 분노와 좌절 배신 증오를 키우게 하는가. 당신들은 사익과 권력욕,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나라를 반드시 파멸의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당신들의 끝없는 탐욕과 위선, 철면피 때문에 불안에 떨고 삶의 방향을 잃고 있다. 해가 바뀌었건만 국민들 마음 속에 설렘이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인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로 가득하다.

계엄과 탄핵은 누구 때문에 생겼는가.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했더냐. 이 추운 겨울날 수많은 국민들이 왜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이나 ‘이재명 구속’을 외쳐야 하는가. 거리에서 외치는 이들은 자신의 소신을 나뉠 펼치니 그래도 낫다. 속마음을 내비치도 못한 채 생활 전선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속끓는 마음은 그대들은

아느냐. 정치란 협상하고 타협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더냐. 개딸들과 태극기부대도 똑같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대 편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대들만큼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오직 자신과 내편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국민의힘은 그 어떤 이유라도 계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 운영이 힘들더라도 그렇지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계엄을 시도할 수 있단 말이나. 어떤 이유로도 계엄을 못막은 책임은 국민의힘과 그 구성원들이 져야 하는 것이다. 오랜 기득권에 안주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채 여전히 표만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아,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안보이느냐. 더욱이 중진이란 다선의원들의 권력욕을 향한 추태는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다. 정말 낮빠빠한 짓거리 아닌가. 그런데도 여전히 파가 나뉘어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며 누구하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인물이 없구나. 지리멸렬 상태에서 또 대권만을 탐하려 하느냐. 사실상 여당보다 더한 권력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연일 탄핵과 구속을 외치는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들아, 당신들은 현 시국에 책임이 없다고 착각하느냐. 민심을 더욱 더 자극해 보수 세력을 완전 전멸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여러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무엇이 그리 떼떽한가.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판 지연, 재판 기피가 웬 말이란 말이나. 내로 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국민을 실망시키건만

반성의 빛은 하나도 없구나. 5000만 국민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는 교훈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면서 카톡 검열까지 나불대는 내로남불은 여전하구나. 당신네들 뜻대로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럼에도 민심의 동요와 이반이 보이지 않느냐.

정당의 목적이 아무리 권력 쟁취라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우선할 수는 없다. 작금의 상황은 해방후 좌우의 갈등에 못지않다. 사실상 ‘심리적 내란’이 아닌 ‘총만 안 든 내전’이라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오로지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기회라고 여기며 같지않은 욕심만 가득하구나.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정치 대리권을 맡긴 것이지, 생사여탈권을 쥐어준 것이 아니다. 당신네들에게 정치 대리권을 준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국민들을 이 고통에 빠뜨리냐. 국민들 입에서는 “이게 나라냐” “그 놈이 그놈” “똑같은 사기꾼”이라는 한탄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당신네들에게 기대를 접었다. 더 이상 당신네들의 개과천선을 기대하지 않는다.

마지막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인들은 들으라. 더 이상 짐승같은 정치, 광기의 정치, 증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멈춰라. 당신네들만을 위한 더러운 권력욕을 접고 국민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라. 당신네들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타협과 대화를 하루빨리 시도하라. 대한민국 현대사는 2024년과 2025년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을 ‘이 시대의 죄인’으로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기고

사례로 이해하는 양도세 관련 상식



이재봉

아인세무회계 세무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는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여부)

사례

1세대 1주택 보유자인 홍길동(이하 매도자)은 심청이(이하 매수자)와 25년 1월에, 2006년 1월에 5억에 취득한 주택을 12억에 매도하기로 합의 후 매수자가 다주택자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계 약 일 : 2025년 1월 03일
용도 변경 일 : 2025년 02월 03일
잔금일(소유권이전일) : 2025년 03월 03일

해설

당초 해석대로라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일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적용 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 바뀐 기재부 질의해석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판정은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청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기존 해석대로 였다면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수자는 상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경된 해석에 의할 경우 매도자는 주택매매가 아닌 나대지를 매매한 것이 되므로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표2), 최대 80%)”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양도세는 과세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표1)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해석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 위와같은 사례는 주택이 오래되거나 혹은 매수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농지 매입 후 지목변경을 하여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13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1543

강화군,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 전달

박용철 강화군수가 지난 21일, 강화군을 대표해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송미영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인천시협의회 회장, 고향숙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화군지구협의회 회장, 적십자봉사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 500만원을 포함한 모금액은 재난구호활동,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및 각종 안전사업, 청소년 선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특별회비 전달로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재난구호, 소외계층 지원 봉사활동 등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서는 군민과 봉사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적십자 회비는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화군,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 전달

강화군, 한국소방에서 미니소화기 300개 기탁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6일, 한국소방(대표 이상훈)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미니소화기 3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방은 지난 2023년에도 휴대용소화기를 기탁하여 관내 장애인 300가구에 미니소화기를 전달한 바 있으며, 저소득가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소화기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화재사고가 많은 겨울철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기본교육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한국소방에서 미니소화기 300개 기탁

박영광 강화군체육회장, 郡 체육발전 기부금 5천만원 쾌척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 수영장 운영시간 확대 등 주도적 역할도

강화군체육회 박영광 회장이 郡 체육발전 기부금 5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박영광 회장의 체육발전 기부금 액수는 1억5천만원에 이른다. 지난 2023년 2월 취임 후 매년 5천만원씩 기부해 온 셈이다.

향토 기업인인 박영광 회장은 동우개발(주), 중앙건설(주) 등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로 체육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 회장이 취임 직후 조성을 주도한 신정체육시설 내 ‘맨발 걷기 황톳길’은 현재 많은 군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일 200명 이상의 군민이 이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새롭게 위탁 받은 남부노인복지센터 내 수영장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해 남부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일에 앞장서 왔다.

이 밖에도 강화군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꾸준히 지역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박영광 회장은 “올해부터는 사랑의 밥차 봉사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강화군 체육회가 강화군민과 공생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영광 강화군체육회장 체육발전 기부금 쾌척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전개

강화군의회,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위문품 전달하며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한승희)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윤준섭)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하



강화군의회,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날 한승희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위문품으로 쌀국수와 커피믹스를 전달하며 센터 시설을 돌아보는 등 직원들과 자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설립돼 자활 근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9명의 직원이 자활 사업을 통해 140여 명의 자활근로를 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은 “명절은 모두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이지만,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되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위문이 그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강화군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설맞이 강화섬쌀 1,000kg 기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설맞이 강화섬쌀 1,000kg 기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영길)이 지난 21일, 양사면과 화도면 이웃들에게 강화섬쌀 고시히카리(10kg) 100포를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공단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사회공헌 활동 기금을 조성했고,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명절 및 연말에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간 바 있다.

또한, 공단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강화군 농협 쌀 조합 공동 사업법인에서 강화섬쌀을 구매해 지역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박영길 이사장은 “취임 후 고향에 내려와 처음으로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했는데 매년 지역사회 이웃과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눔을 아끼지 않은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설을 맞아 기부한 쌀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연을 담은
강화섬의 맛!

강화도농특산물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감기, 독감, 코로나19, 폐렴의 특징

요즘 감기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환절기나 날씨 변화가 큰 시기에 더 많이 유행하는 데, 최근 유행하는 감기는 일반적인 증상 외에도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감기인지, 폐렴인지... '일주일'에 달렸다

- 감기: 증상이 서서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심하진 않다.
- 독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이 있다.
- 코로나19 감염: 2~3일에서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 폐렴: 호흡곤란(숨이 참), 냄새가 나는 누런 가래, 피로, 발열 등 증상이 다양하다.

감기증상은 서서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심하진 않다. 콧물, 코막힘, 두통, 미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 오한, 결막염, 설사를 동반한다. 감기가 낫는 데는 약 먹어도 '일주일', 그냥 있어도 '일주일'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1주일을 크게 넘지 않는다. 하지만 2~3주 이상 방치되면 중이염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감은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한 증상으로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구토, 설사, 열성 경련, 복통,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과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치료 시 증상은 2~3일간 집중되다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나아지나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3일 내지는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쳤다가 고열, 인후통, 기침, 가래,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무기력, 폐렴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폐 손상이 심해져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개인별로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놓치기 쉽다. 하지만 점차 고열이 나면서 기침과 누런 가래가 일주일 넘게 지속하면 폐렴을 의심해볼 수 있다. 또 호흡기 증상이 없어도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며 자주 졸릴 때도 폐렴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 그래서 치료도 다르다

- 감기: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200여종이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
-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b형, c형
- 코로나19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 폐렴: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등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폐렴은 바이러스 외에도 세균 등 다양하다.

감기는 워낙 200종이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감염 원인별 약이 없고,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 위주로 치료한다. 리노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초가을과 봄에 많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추운 겨울, 건조한 날씨에 많다.

독감은 매년 유행이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으며, 타미플루, 리렌자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적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형과 b형이 사람에

게 병을 일으키는데, b형은 한 가지 종류로 증상 정도가 약하지만, a형은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 사람에게 면역 정보가 없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경우 전 세계를 휩쓰는 대유행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중국에서 사망자가 연일 속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감기처럼 대증요법으로 증상을 관리하면서 항항생제와 에이즈, 말라리아약과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을 다녀온 후 또는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 후 14일 이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면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후 병원 진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병원부터 찾는 경우 감염 위험으로 폐쇄 조치나 격리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렴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음식물, 구토물 등 원인이 다양하며 염증 치료를 위해 주로 항생제로 치료한다. 폐렴은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면 폐렴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독감 백신은 매년 맞아야 하지만 폐렴백신은 1회만 맞으면 되며 우리나라서 65세 이상은 독감과 폐렴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감염위험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철저한 위생관리이다. 셀프 백신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출처: 하이닥 www.hidoc.co.kr

2025 을사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강화군의의회
Ganghwa County Council



도령가구

쇼파 맞춤형가구 전문 공장직영

- 가구리폼 천갈이 A/S
- 낫칼 가위 농기구 갈아 드립니다
- 샵낫 호미 농기구 자루 교체 수리
- 서랍 밑 빠짐, 레일 경첩, 손잡이 장식외 부속품
- 싱크대 배수구, 후드 수전 문짝수리 가스렌지 교체

붙박이장농 · 침대 · 쇼파 · 돌침대
싱크대 · 신발장 · 사무용가구
비규격 주문제작 및 출장 이동 수리



수리중



수리후



도령가구

공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20-1 타이어뱅크 앞

M. 010-3304-8982 T. 032-932-8982

이화인쇄광고기획

인쇄 & 복사 광고기획 디자인 전문

- | | | | | | |
|----|----|-----|------|------|-----|
| 명함 | 봉투 | 스티커 | 팩스 | 스캔 | 포스터 |
| 달력 | 수첩 | 전단지 | 제본 | 무선 | 스프링 |
| 상패 | 명패 | 쇼핑백 | 인쇄 | 복사 | 청첩장 |
| 배너 | 깃발 | 현수막 | 전산용지 | NCR지 | |
| 행사 | 홍보 | 기념품 | 책 | 전문 | 출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6(강화군청 앞) F 032.934.2924 T

032.934.2923

利化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